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6월 4주~7월 1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○ 폴란드, 2026년 GDP 성장률 3.5%, 물가 상승률 3% 목표(6.12)

- 정부는 2026년 GDP 성장률을 3.5%, 물가 상승률을 3%로 설정함
- 평균 임금은 6.7% 상승 예상하며, 실업률은 2026년 말 4.9%로 예측
- 해당 경제 지표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*와 추가 협의 예정이며, 정부는 9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

* 사회적 대화 협의체(Council for Social Dialogue, Rada Dialogu Społecznego): 정부, 고용주, 노동조합 등이 함께 모여 경제, 사회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

○ 폴란드 5월 물가 상승률 4%(6.13)

- 통계청(GUS)은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%로 집계 발표
- 이는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예비 수치보다 0.1%p 낮은 수치로, 4월 물가 상승률은 4.3%, 3월은 4.9%였음
- 중앙은행은 2025년 물가 상승률을 평균 4.9%로 예상하며, 2026년에는 3.4%, 2027년에 2.5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- 정부는 2025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3%로 설정했음

○ 폴란드 정부,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(6.12)

-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 월급을 PLN 4,806으로 인상계획을 발표
- 최저 시급은 PLN 31.40으로 인상,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
- '25.6월 기준 최저 월급은 PLN 4,666, 최저 시급은 PLN 30.50임
- 4월 폴란드의 평균 월급은 PLN 9,045.11로 보고됨

○ 폴란드 2025년 1분기 주택 준공 5.1% 감소(6.18)

- 통계청(GUS)은 '25년 1분기 전국 주택 준공이 전년 동기 대비

5.1% 감소한 약 4만 5,900채로 집계됐다고 발표, 이는 당초 추정치인 4.6% 감소보다 더 큰 폭임

- 같은 기간 주택 착공도 7.3% 줄어든 약 5만 5,700채를 기록해 건설 부문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
- 2024년에는 약 20만 4,000채가 준공돼 전년 대비 9.4% 감소했으며, 정부의 청년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

○ 폴란드, 2025년 1~4월 무역수지 28억 유로 적자 기록(GUS, 6.23)

- 통계청(GUS)은 2025년 1~4월 기간 무역수지가 약 28억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
- 수출 1,189억 유로, 수입 1,217억 유로로,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.5% 증가, 수입은 6.3% 증가
-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, 체코, 프랑스이며, 주요 수입국은 독일, 중국, 미국임
- 참고로 2024년 전체 기준으로 폴란드가 7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음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 중앙은행(NBU),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 시사(6.17)

- NBU 통화정책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재개를 논의했으며,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
- 인플레이션 완화와 가격 안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다만 위원 대부분은 전쟁 장기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생산 차질 등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,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
- 반대로,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인 5%로 안정적으로 회귀하지 못할

경우,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(긴축)도 대응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

- 그러나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물가 압력을 제어하기 충분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며,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낮다는 분석

○ 우크라이나 은행권, 전쟁 3년 반 동안 약 2,550억 순이익 달성(6.17)

- NBU(우크라이나 중앙은행)는 2025년 1분기 은행권은 2400억의 순이익을 기록, 이 중 65.7%는 국영은행이 창출했다고 발표함
- 2024년 전체 순이익은 약 1,037억 흐리우냐(약 3.4조원)로, 여신 증가 및 국채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25% 상승함
- 2024년에는 기업 대상 순 흐리우냐 대출이 21%, 가계 대출은 40% 가까이 증가했으며, 국채 투자 규모는 35% 증가해 수익성 제고에 기여함
- 2023년에는 865억 흐리우냐(약 2.83조원)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, 전쟁 첫해인 2022년은 수익이 68% 급감한 247억 흐리우냐에 그침
- 은행권 수익성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는 NBU의 예금 증서(Certificate of Deposit, CD) 투자가 지목됨

○ 우크라이나 민간 사모펀드 일부, 예상 웃도는 수익률 달성(6.17)

- 2024년, 우크라이나 사모펀드 운용사 UMG^{*}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총 2억 6,221만 달러(약 3,600억원)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.5배 성장

* 우크라이나의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로, 2006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유럽과 터키를 포함한 7개국에 투자를 진행중, 투자분야는 광물자원개발, 그린경제, 농업가공, 희귀 및 특수가스 등임

- 포트폴리오 기업들은 제품·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세수에도 기여 (2023년 대비 189% 증가한 2,375만 달러 납세)
- 희귀·특수 가스 가공 및 판매업체 ARNOX는 미국 우주산업 대상 공급 사업에 진출하며 신규 시장 확보
- 가축 부산물 가공업체 Feednova는 우크라 중부에 제2 공장 건설을 시작, 유럽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보 및 가공 산업 강화 목적

- 포트폴리오 전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300만 달러를 생산기반 확대에 투자했으며, 이 중 76%는 생산설비 신축, 장비 도입, 장기 자산 확보에 활용
- 현재 UMGI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우크라이나, 폴란드, 터키, 스페인, 이탈리아, 루마니아, 세르비아 등 7개국 8개 자산으로 구성되며, 시장 추정 가치 총 5억 달러(약 6,700억원) 규모

○ 우크라 고급 주택시장 위축, 신규 개발 중단 및 가격 급락(6.17)

- Taryan Group*의 CEO Artur Mkhitarian에 따르면, 우측 프리미엄 부동산 매매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, 키이우 고급 아파트 가격은 30~50% 하락하였음
- * 2011년 키이우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부동산 개발 회사로, 주로 고급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
- 전쟁 전 고급 주택 평균 가격은 m²당 최대 7,000달러였으나, 현재는 3,500~4,000달러 수준으로 하락
- 전쟁 초기 프리미엄 시장은 사실상 거래 중단 상태였으며,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쟁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
- 반면, 보급형 및 비즈니스 주택은 m²당 평균 가격이 상승 중이며, 건축비 역시 지속 상승 중
- Mkhitarian CEO는 고급 주택의 수익성 악화로 현재 신규 사업 착수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함

○ 우크라이나 전쟁 4년차, 노동시장 인력난 지속(6.18)

- 전체 기업의 70% 이상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, 징집, 역내 이주, 해외 노동력 유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
-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, 직원 교육, 근무시간 단축, 의료보험 · 보너스 · 심리상담 · 공과금 지원 등 복지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
-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는 전쟁 전 대비 30~40% 인력 부족 상태이며, 특히 동부 · 남부 지역의 생산 감소와 인프라 악화로 구조적 위기 심화

- 대응 방안으로는 업무 디지털화, 여성의 전통적 남성 중심 분야 진입 장려, 은퇴자·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력 대체 전략 확대
- IT 산업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(연 5~10%)를 보이며, 국외 원격 인재 유입을 통해 인력난 일부 해소
- 2025년에도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 10~20% 증가, 유연 근무제 확대, 재교육 및 직원 역량 강화, 중소기업 디지털화, 여성 및 은퇴자 고용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
- 개발도상국 외국인직접투자(FDI), 2005년 이후 최저 수준 기록(6.18)
 - 세계은행에 따르면, 2023년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4,35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
 - 전문가들은 공공부채 급증과 외국인 투자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며, 최근 각국 정부가 투자·무역 장벽을 강화해 온 점이 투자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
 -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투자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으며, 특히 미국의 최근 무역장벽 확대 조치와 그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현재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
 - 경제분석가들은 정부에 투자 규제 완화와 개방적 정책 전환을 권고

3 **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**

- 폴국영개발은행(BGK),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633백만 유로 지원(6.17)
 - BGK는 최소 20MW 규모 수소 생산시설에 대한 공동자금 신청을 평가해 총 약 27억 즈워티(약 1.08조원)를 6개 프로젝트에 배정
 - 해당자금은 국가재건계획(KPO) 지원금으로, 재생 에너지 개정지침(RED III)에 따른 산업·운송 부문의 수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 목적임
 -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수소 비율 42%, 2035년 60%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, 운송 부문은 최소 1% 수소 사용을 요구함
 - 지원금은 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무상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며, MW당 최대 약 200만 유로(약 31.7억원)까지 지원 가능함

- 최대 규모 보조금은 12억 즈워티(약 4,500억원)로, ORLEN 그룹의 ‘Hydrogen Eagle’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으며, 이외에 ORLEN 계열사 LOTOS Green H2는 523백만 즈워티를 수령
- ORLEN 그룹, 수소 프로젝트에 17억 즈워티 무상 지원금 확보(6.17)
 - ORLEN 그룹의 ‘Hydrogen Eagle’ 및 ‘Green H2’ 프로젝트가 국가재건계획(KPO)으로부터 약 17억 즈워티(약 6,350억원) 규모의 무상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됨
 - Hydrogen Eagle은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기반(Waste-to-hydrogen) 저탄소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며, 유럽 수소 인프라 강화와 탄소 배출 저감 기여
 - Green H2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프로젝트로, 정유 공정용 수소 생산을 위해 100MW급 전기분해 설비 구축 예정
 - ORLEN은 2035년까지 약 0.9GW 용량의 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, 이 중 약 0.7GW는 폴란드 내 설치 예정
 - 본 사업은 KPO 내 ‘수소 기술 및 생산·저장·운송 투자(B2.1.1)’ 프로그램 일환으로, 국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함
- Panattoni, 바르샤바 산업단지 물류센터에 1,020만 유로 대출 확보(6.17)
 - Panattoni*는 바르샤바 서부 산업단지(Panattoni Park Warsaw West) 내 마지막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Erste Group Bank AG로부터 1,020만 유로(약 162억원) 대출을 확보
 - * 유럽 및 북미 전역에서 산업·물류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로, 폴란드와 중유럽(Central Eastern Europe, CEE)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 보유, 2005년 폴란드 진출 이후 누적 수백만 m² 규모의 물류공간 공급
 - 해당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약 1.6만m²이며, 물류업체 XBS Logistics가 입주할 예정
 - 전체 단지는 약 9만m²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전면 임대완료
 -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Błonie는 바르샤바 도심 및 국제 쇼팽 공항과 가까우며 CPK 예정지, A2 고속도로 등 주요 물류 네트워크와 인접해 우수한 접근성 보유
 - 에너지·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친환경 설계가 적용되었으며, BREEAM* ‘Excellent’ 등급 환경 인증 예정

* BREEAM(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): 영국 BRE(건축연구소)에서 개발한 친환경 건축인증으로,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운영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, 자원 사용, 환경 영향, 실내 환경 품질,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며,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됨

○ 폴란드 산업부, 철강산업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 초안 발표(6.17)

- 높은 에너지 소비, 제3국과의 경쟁, 환경규제 및 과도한 행정절차 등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, 2050년까지 산업 구조 전환의 기반 마련 목적
- 계획은 경쟁력, 에너지, 생태, 탈탄소화, 순환경제, 산업안보 등 6대 전략영역을 중심으로 구성
- 주요 조치로는 ▲EU 환경기준 미준수국 철강업체의 공공조달 제한 ▲에너지 집약산업 기업 지원 확대 ▲폐기물 처리 허가 절차 등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▲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 ▲저탄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(R&D) 지원 ▲친환경 철강 전환을 위한 고철 수입 장벽 완화 등이 포함
- 2024년 폴란드 철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.1% 증가한 710만 톤 기록하며 하락세에서 벗어남
- 2025년 1~4월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3.9% 증가한 248만 톤으로, Huta Częstochowa 제철소 가동 재개가 회복세에 기여함

○ 폴란드 A2 고속도로 구간 신설에 EU 자금 지원(6.17)

- A2 고속도로 Siedlce~Biała Podlaska 구간(63km) 신설 사업에 대해, 총사업비 29억 즈워티 중 7.65(약 2,825억원)즈워티를 EU ‘FEnIKS’ *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재원으로 확보함

* FEnIKS(Fundusze Europejskie na Infrastrukturę, Klimat, Środowisko 인프라·기후·환경 유럽기금) 폴란드가 2021~2027년 동안 EU 기금을 통해 인프라·기후·환경·교통·보건·문화 등 분야에 투입되는 국가 발전 패키지

- A2 고속도로 구간은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, 3개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, 나머지 1개 구간은 사용 허가가 완료됨
- 사업에는 S19 고속도로 2km 구간 건설과 3개 도로 분기점 조성, 4개 휴게소 및 2개 고속도로 유지관리 구역 구축이 포함됨

- 폴란드 도로청(GDDKiA)은 해당 전 구간을 금년 내 개통할 계획이며, 이후 Biała Podlaska~Dobryń(25km 이상) 구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
- 한편, FEnIKS 프로그램을 통해 2024~25년간 약 74.8억 즈워티 규모의 EU 지원금이 폴란드 도로 건설 사업(S3, S6, S7 등)에 배정된 바 있음

○ 폴란드, EU와 50억 즈워티 규모 AI 기가팩토리 추진(6.16)

- 폴란드 디지털부는 EU의 ‘AI 기가팩토리’ 구축 프로그램 참여 논의를 최종 조율 중이며, 6월 20일 이전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 예정이라고 발표함
- 포즈난 슈퍼컴퓨팅·네트워킹센터(PCSS) 내 ‘PIAST AI 팩토리’ 건립이 핵심 사업으로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5천만 유로(약 793억원)를 투자, 폴란드 정부는 약 340백만 즈워티(약 1,260억원)를 추가 투자할 예정임
- 해당 공장은 보건, 생명과학, IT·사이버보안(양자 포함), 우주·로보틱스, 에너지·농업·기후 등 분야에서 AI 기술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예정
- 디지털부는 해당 시설이 향후 최대 30,000개 GPU 규모로 확대되며, 총투자액이 약 50억 즈워티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민간 투자로는 미국 NVIDIA가 Kulczyk Investments와의 협력으로 포즈난에 유럽 10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구축을 계획 중이며 Play-Scaleway, Beyond.pl 등의 폴란드 대표 통신사,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의 AI 전용 클라우드 및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음

○ 폴란드, 12월 4GW 해상풍력 경쟁입찰 계획 발표(6.23)

- 폴란드 에너지 규제청(URE, Urząd Regulacji Energetyki)은 해상풍력 발전 4GW 확보에 대한 경쟁입찰을 오는 12월 17일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
- 입찰대상 해상풍력 발전의 최대 총 설치용량은 4GW이며, 지원금 조달은 전력 송전 운영사가 징수하는 재생에너지 요금에서 충당 예정

-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Equinor와 폴란드 최대 민간 에너지사 Polenergia는 1,560MW 규모 ‘Bałtyk 1’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전 자격심사를 URE에 제출함
- Bałtyk 1 발전소는 최대 104기 터빈, 최대 2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, 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Bałtyk 2·3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3,000MW 용량으로 4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
- 폴란드는 현재 국내 석탄과 갈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,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8.8%에 달하며 2030년까지 최소 3.4GW 해상풍력 설치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

○ 기후환경부,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지원 대출 신청 개시(6.18)

- 폴란드 기후환경부의 에너지 전환 대출 프로그램이 2025년 6월 13일 신청 접수를 시작
- 본 대출 프로그램의 재원은 24년 9월 설립된 ‘에너지 지원 기금 (Fundusz Wsparcia Energetyki)’에서 확보됨
- 대출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, 전력 저장 시설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에 활용 가능하며, 총 70억 즈워티 이상 배정
- 대출 조건은 최소 2억 즈워티, 15년 내 상환원칙(최대 2053년까지), 우대금리(중앙은행 기준금리 -200bp 또는 시장금리, 최저 1%), 지원비율은 최대 90% (자부담 10% 이상), 거치기간 1년 이내
- 지원 대상 사업은 '22년 2월 이후에 진행된 신규 프로젝트이며,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, 에너지 효율 개선, 친환경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난방·가스망 현대화, 재생에너지·전력 저장 설비 구축,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비 절감 시설 등을 포함
- 대출 신청 대상은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및 공공기업과 50% 이상 직접 지분 보유·통제하는 기업 또는 조합임
- 기존 EU RRP(Recovery and Resilience Plan, 유럽연합 국가재건 및 강화계획) 또는 기타 폴란드 정부 지원 보조금, 부가세, 금융비용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

○ 루마니아·폴란드, 대규모 BESS 구축사업 본격화(6.25)

- 최근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 전력기업 중심의 대규모 BESS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
- R.Power*는 루마니아에서 127MW/254MWh 규모 Scornicesti BESS 프로젝트를 2025년 3분기 착공하여 2026년 3분기 준공 예정, 해당 사업은 루마니아 에너지부가 EU RRP 자금에서 약 7,460만 RON (약 230억원)을 지원함
- *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독립 발전 사업자(IPP)로, 2010년 설립 이후 태양광 (PV)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, 그리고 풍력까지 포함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·운영 중이며,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6개국에 진출
- 루마니아 전력 기업 Electrica는 Fantanele 지역에 35MW/70MWh 규모 BESS 및 110kV/MV 변전소 건설을 포함한 EPC 입찰을 진행 중이며, 저장장치사업 분야 경험이 있는 고품질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를 추진 중
- 폴란드에서는 R.Power가 5MW/10MWh 규모의 Herby BESS 프로젝트를 2025년 4분기 착공해 2026년 1분기 가동 예정이며, 해당 사업은 2024년 용량 시장에서 2029년 납품 계약을 확보하였음
- 양국은 EU 지원 제도 및 자체 에너지정책에 기반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확대를 위한 BESS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, 향후 민간-공공 협력 기반의 프로젝트 다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

○ 폴란드 S11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 착공(6.13)

- 폴란드 도로청은 S11 고속도로 Tarnowo Podgórne~Poznań Zachód 분기점 구간(총 14km) 포장 개보수 공사를 오는 6월 말 착수예정
- 시공은 Colas Polska가 담당하며, 총 공사비는 약 2,730만 즈워티(약 99억원)로 추산됨
- 본 공사는 방향별로 병렬 진행하지 않고 동·서측 각 4개 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공되며,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함
- 공사 기간 중 1차로 통행 제한 및 시속 80km 속도 제한이 적용되며, 임시 교통 체계는 6월 13일부터 순차 도입 예정

○ 폴란드, 철도 부문 재생에너지 전력 도입 본격화(6.18)

- 폴란드 국영 철도 운영사 PKP Intercity는 2026년~2027년 동안 총 2TWh 전력 중 602G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는 계약을 PGE* 그룹 산하 PGE Energetyka Kolejowa와 체결함
- * PGE(Polska Grupa Energetyczna):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, 송배전, 전력 판매 등 전력 공급 전 과정을 담당하는 폴란드 최대 전력회사이며,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투자, BESS 산업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
- 본 계약을 통해 PKP 차량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6년 25%, 2027년 35%로 확대, 2030년까지 50% 달성을 목표로 설정
- 본 계약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, 탄소배출은 2026년 약 15만톤, 2027년 약 22만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, 2026년부터는 차량 운행용 견인전력을 제외한 신호시스템, 통신 시설 등 비견인(non-traction)용 전력을 100% 재생에너지로 전환 예정
- 해당 계약은 2030년까지 철도 부문 탄소배출 감축 및 철도 운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철도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임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우크라, 폴란드에 SME Alliance 및 재건사업 협력 제안(6.17)

-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율리야 스비리덴코는 키이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크시슈토프 파시크 폴란드 개발장관이 이끄는 대표단과 만나, 폴란드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논의
- 현재 3,000개 이상의 폴란드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,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고 강조
- EU의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(UIF)*를 통한 투자 유치 실무도 논의됐으며, 특히 에너지 및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이 언급됨

* UIF(Ukraine Investment Fund): EU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로, 전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, 산업 재건,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 투자촉진 플랫폼

-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측에 SME Alliance(SME,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liance 중소기업 협의체) 참여를 공식 제안하고, 향후 투자 설명회 등 후속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

○ 독일,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프로젝트에 공동 자금 지원(6.17)

- 독일 뮌헨안보회의 수석연구원 니코 랑게(Nico Lange)는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3개의 드론 생산 프로젝트에 독일이 총 4억 유로(약 6,200억원)를 지원한다고 발표함
-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신규 개발이 아닌, 우크라이나가 자체 진행하던 기존 프로젝트들로, 독일의 자금 투입을 통해 양산 및 실전 배치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
- 랑게는 우크라이나 전문 인력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며, 독일의 재정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및 기술 개발이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
- 드론 생산은 독일 군사 지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며, 앞으로 산업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
- 랑게는 “우크라이나 방위 부문에 대한 투자는 올바른 방향이며,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”고 언급

○ 우크라이나, 올해 미사일 개발·생산 계획 목표의 47% 달성(6.16)

- 6월 1일,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아나톨리 클로치코는 2025년 미사일 개발 및 생산 프로그램의 47%를 달성했다고 밝힘
- 무기 개발 자금은 국가 예산, 관련 기업 기여, 국제 파트너 지원으로 조달되고 있음
-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우크라 군 무기 수요의 약 33%를 충족
- 우크라산 ‘Sapsan’ 탄도 미사일은 마하 5.2(초속 1,769m)로 미국 ATACMS(마하 3)보다 빠르며 러시아 이스칸데르-M(마하 6)에 근접
- 5월 전술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,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함

○ 슬로바키아 정부, 우크라이나 EU 가입 지지 입장 표명(6.18)

-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, 단, 가입 조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
- 피초 총리는 “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주권적 결정이며, 슬로바키아는 이를 지지한다” 고 언급
-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인프라 등 우크라이나 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EU로부터 110백만 유로(약 1,600억원)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, 이 자금은 유럽기관이 보증하는 대출 형태로 슬로바키아 기업에 제공
- 양국 정부는 오는 가을 공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
- 피초 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준비 부족을 언급했으나,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자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, 가입 협상 개시를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

⑤ 기타 EU 시장 동향

○ 유럽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 시장, 2034년까지 4배 성장 전망(6.13)

- 유럽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 시장은 2024년 기준 567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까지 연평균 13.68% 성장해 2,2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- *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(Collocation):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거나 운영하지 않고, 외부 전문 시설(콜로케이션 센터)에 서버나 IT 장비를 입주시켜 운영하는 방식
- 하이브리드 IT, 클라우드 전환,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고성능 · 확장성 · 보안성이 확보된 IT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며 콜로케이션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, 엣지 컴퓨팅 확산과 함께 저지연 · 분산형 데이터센터 수요도 증가 중
- 에너지효율 및 지속가능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액체 냉각, 친환경 설계, 재생에너지 도입 등 ‘그린 콜로케이션’ 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며 GDPR* 등 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도 콜로케이션

수요를 견인

*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: 유럽연합(EU)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법령으로, EU 시민의 데이터를 수집·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

- 주요 트렌드로는 엣지 데이터센터 증가, 멀티·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요 확대,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초대형(hyperscale) 파트너십 등이 있으며, 과제 요인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비, 전력망 제약, IT 인력 부족 등이 지적됨
- 주요 활용처는 통신, 금융, 공공, 의료, 제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으며, 중소기업을 위한 리테일 콜로케이션부터 대기업 대상의 도매형 콜로케이션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공존
- 주요 시장은 프랑크푸르트, 암스테르담, 파리, 런던 등이며, 최근에는 부지·전력 여유 및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남유럽 및 동유럽으로의 시장 확장도 가속화됨
- 기업들은 M&A, 공동투자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,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보안·운영 역량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평가됨

○ 루마니아,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 가능성 주목(6.18)

- 서유럽 주요 데이터센터 시장의 전력 비용 상승, 부지 부족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루마니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되는 추세
- Cushman & Wakefield Echinox 보고서에 따르면, 루마니아는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, 안정적인 전력망, 고속 인터넷 인프라 등 데이터센터 입지로서 긍정적인 요소를 다수 보유
- IT 인력 역량, 합리적인 인건비 수준, EU 기준을 충족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됨
- 온화한 기후도 냉방에너지 절감, 천연 냉각기술 도입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
- 부동산 가격 안정성 및 충분한 가용 부지로 인해 진입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, 부쿠레슈티 외에 클루지나포카, 티미쇼아라, 야시 등

지역도 잠재 유망지로 평가됨

- 현재 루마니아 내 데이터센터는 59개소, 대부분 소규모이며 전체 설치 용량은 100MW 미만으로 나타남
- Dolj 지역 Mischii 에서 건설 중인 Cluster Power의 200MW급 데이터 센터는 향후 시장 확대의 사례로 주목됨
- 전반적으로 루마니아는 기반 인프라와 인적 자원 등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평가됨

○ N2OFF, 독일 Melz에 40-60MW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 추가 투자 계획(6.16)

- N2OFF*는 독일 멜츠(Melz) 지역 111MWp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40~60MWp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 통합을 검토 하며 투자 확대를 발표

*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소규모 클린테크 기업으로, 농식품 살균 솔루션, 아산화질소(N_2O) 저감기술, 재생에너지(태양광·BESS)분야에 투자를 확대중이며, 2024년 NASDAQ 시장에 상장, 유럽 내 100MW급 BESS 프로젝트와 곡물 재배지 대상 온실가스 저감 실증사업 등을 추진 중

-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지방위원회 승인을 받아 2026년 초 착공 준비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BESS 도입은 잉여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거나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전력을 구매한 후,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의 일환임
- 독일 BESS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2억 7,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할 전망이며, 2024~2030년간 연평균 성장률(CAGR)은 30.7%로 추정됨
- 본 프로젝트는 N2OFF와 Solterra Renewable Energy 간 유럽 내 공동사업의 일환이며, 양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(98MWp/392MWh ×2), 폴란드(35MW/140MWh), 알바니아 등지에서 추가 BESS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 중임

○ MET Group, 헝가리 최대 규모 BESS 시스템 준공완료(6.16)

- 에너지 기업 MET Group*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가스 발전소인

Dunamenti에 40MW/80MWh 규모의 독립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, 이는 헝가리 최대 규모 BESS로 평가

- * 다국적 에너지 기업으로 스위스에 본사 위치, 유럽 전역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저장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. 작년 통합 매출 179억 유로, 총 천연가스 거래량은 1,400억㎥, 전력 거래량은 760TWh으로, 가스·전력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 실적을 보이고 있음
- 신설된 시스템은 화웨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, 시공은 헝가리 전력통신 구조물 설계회사인 Forest-Vill사가 맡음
- MET Group은 2022년 동일부지에 4MW/8MWh 규모의 테슬라 메가팩 기반 실증 유닛을 설치한 바 있음
- 신규 BESS의 저장 용량은 부다페스트의 전체 공공 및 경관 조명을 4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, 전력망 안정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활용됨
- 헝가리 배터리협회는 “기존 기술을 활용해 국가 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하며, 배터리 저장 기술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” 이라고 언급함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7(15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
'25. 7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및 착수 완료('25.2), 현지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완료('25.3), 중간보고 완료('25.6), 자료 수취 지연 등으로 용역 연장 협의중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11월 최종 PAC(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) 발급

- (주요동향)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,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 및 주요 투자조건 협상
'25. 3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착수보고('24.2월) • 1단계 중간보고('24.9월) • 2단계 중간보고('24.10월) • 초청연수 실시('24.10월) • 현지 최종보고('25.4월)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필 향 등 건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 上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